

98년
외노협
활동 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Ma1.1

98의 노협활동자료집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6층

Tel & Fax 744-9063 / E-mail) jcmk@chollian.net

hppt://kpd.sing-kr.org/jcmk

인권정보자료실
Ma1.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6층

http://kpd.sing-kr.org/jcmk

98년
외노협
활동 자료집

외노협에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많은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헌신적 노력을 마다 않으시며
이주노동자와 동고동락하시는, 외노협 회원단체를 비롯한
활동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료집은 외노협 98년 활동을 결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 관련 유용한 자료를 모아
활동하시는데 보탬이 되게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외노협 활동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기독교사회발전협회', '아시아재단',
'실업극복국민운동' 그리고 '민주노총'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9.3.5

동경을 넘어 연대를!
관심을 넘어 참여를!

MIGRANTS RIGHTS ARE HUMAN RIGHTS

I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98' 현황과 활동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기구표 3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주소록 4
- 외노협 회원단체의 98년 활동보고와 99년 사업계획 6
- 외노협 98년 주요 활동보고 48
- 외노협 99년 주요 사업계획 61

II 98' 국정감사 자료로 보는 외국인노동자 체류실태와 연수생 현황

- 외국인노동자 체류 현황 67
- 연수생 관련 현황과 연수취업제 운용현황 71
- 산업연수생 활용포기 현황 81
- 연수생 선정, 배분, 관리 등에 관련된 각 부처의 권한, 근거법, 관련회의 참석자의 인적 현황 83

III "이주노동자와 신자유주의" 서울 국제 워크샵

One year after: Surveying the impact of the Asian Crisis on the Migrant Workers 89

- 아시아의 위기가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읽글 번역본) 102
- 제일 외국인 노동문제에 대한 카나가와 시티유니온의 해결방법 121
- 카나가와 시티유니온의 제일 외국인 상담운동 140
-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philippines 144
-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와 전망 151
- The realities and futures prospects(Migrant Worker's) 161

IV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조약 비준 캠페인

-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인권 165
- Importance and Content of Convention 179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약 전문(全文) 196
- 본 조약의 중요성과 그 내용 198
- 본 조약의 비준과 효력발생 과정 및 본 조약의 비준 촉구활동 경과 206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약에 대한 비준 촉구문 208
- MFA Statement for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Day 211

V 각종 회의 자료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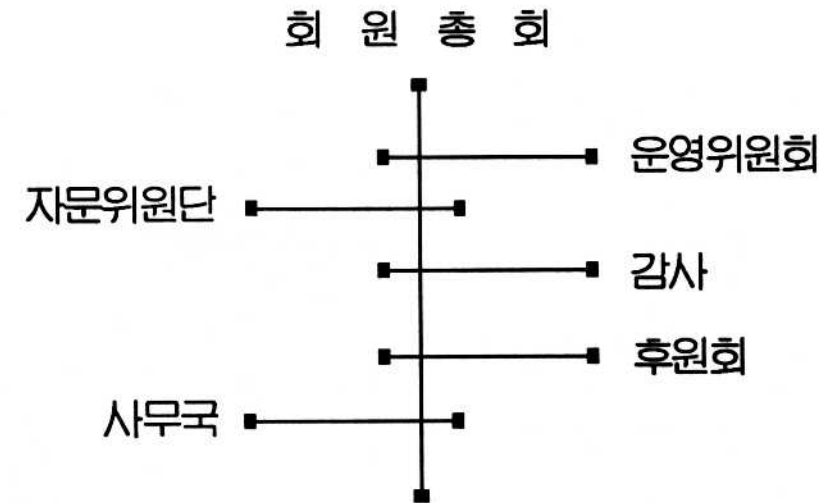
- South Korea Report : Impact on Migrant Workers 215
-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조합과의 연대 219
- APPA 보고서 233
- 이주노동자 포럼 선언문 241
- 기업행동강령 244
- 이주노동자 권리 옹호 캠페인과 대안적 저축에 관한 아시아협의회 247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98' 현황과 활동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기구표 / 회원단체 주소록
- 외노협 회원단체의 98년 활동보고와 99년 사업계획
-13개 단체
- 외노협 98년 주요 활동보고 / 99년 주요 사업계획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기구표



임원

회장 이금연 관장
부회장 이정호 신부

감사

김경태 목사
김은주 총무

운영위원단

김상집 소장
김해성 목사
모경순 님
박석운 소장
박천응 목사
유진 신부
이란주 님
정귀순 대표
최의팔 목사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자문위원단

강수돌 교수 곽노현 교수
김형태 변호사 박경태 교수
박원순 변호사 손광운 변호사
오재식 회장 이삼열 교수
이재정 총장 이철순 대표
조희연 교수 차지훈 변호사
천정배 의원 최재욱 교수
최홍엽 박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주소록

회원단체		
경기북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 센터 의정부시 가농1동 363-1 법전 B/D 304호 ☎480-101	☎0351-878-4090 ☎878-4092	ID 천 kaneoha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도계동 101B 3-1L ☎641-540	☎0551-277-8779(팩스겸용)	ID
광주 외국인노동자 센터 광주광역시 광안구 월계동 816-11 ☎606-302	☎062-971-0078 ☎971-0079	ID 천 들꽃나리
구미 카톨릭 근로자 센터 경북 구미시 원평 1동 374-2 ☎730-011	☎0546-52-2314 ☎52-6929	ID 천 kc2314
대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대구광역시 남산4동 2635-5 대구 구민교회(내) ☎700-444	☎053-256-0696 ☎257-0691	ID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부산시 진구 전포4동 193-9 서울깎두기 4층 ☎614-044	☎051-802-3438 ☎809-4722	ID 천 noja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 2동 184-5 22동 6번 ☎421-112	☎032-654-0664 ☎668-0077	ID 천 bmwh
서울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서울 종로구 창신 2동 130-102 ☎110-542	☎3672-9472 ☎744-3594	ID 천 smcw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7288-11 ☎461-192	☎0342-756-2143~4 ☎757-8093	ID 천 smwh94
안산 외국인 노동자 사무센터 갈릴리아 안산시 원곡동 843 인세연립 다동 B101호 ☎425-130	☎0345-494-8483(팩스겸용)	ID 천 galilea
안산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안산시 원곡동 799-12 ☎425-030	☎0345-492-0669 ☎493-7353	ID kim6137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터 안산시 원곡동 749-2 ☎425-130	☎0345-492-8785 ☎492-8786	ID 천 shinter
안양 전진상 화관 이주노동자의 집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430-014	☎0343-443-2876 ☎446-2876	ID 천 aycc
여성교회 여성이주노동자 센터 서울 중구 장충동1기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100-391	☎2266-1850 ☎2269-0670	ID
외국인노동자 살림의 집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 2리 산 33-9 ☎472-840	☎0346-594-5825 ☎594-1135	ID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서울용산구 남영동 127-1번지 우신B/D3층 ☎160-166	☎795-5604 ☎749-6055	ID 천 a001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 연합회관 1110호 ☎110-740	☎708-4181~3 ☎708-4186	ID 천 kcwu8
회원준비단체		
경산 외국인노동자 교회 경북 경산시 삼북동 275-2 ☎712-020	☎053-815-7842(팩스겸용)	ID 천 bokmin
외국인노동자의 집/인내인의 집 경남 창원시 내동 미주삼기 4층 ☎641-050	☎0551-261-0399(팩스겸용)	ID

유관 상담소		
대구 근로자 화관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2가 35번지 ☎700-192	☎053-253-1313 ☎255-4861	ID 천 caa402
부산 외국인근로자 선교회 부산 금정구 금사동 117-1 4동 2번 석대중앙교회 내 ☎609-410	☎051-522-0497 ☎523-1146	ID
부산 카톨릭 노동 상담소 부산시 사하구 신평 1동 259-1 3동 5번 ☎604-031	☎051-293-6403 ☎293-6404	ID 천 katol
사회일꾼의 집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3번지 ☎429-450	☎0345-497-7151 ☎499-7294	ID 천 xacy21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경남 양산시 북부동 204-7 ☎626-030	☎0523-388-0988 (팩스겸용)	ID 천 yfwh
엠피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0번지 ☎440-150	☎0331-257-8501 ☎257-8535	ID
인천 카톨릭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 카톨릭 화관 내 ☎400-090	☎032-765-1094 ☎032-761-9546	ID
창원 카톨릭 사회교육화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 창원시 신월동 13-67 ☎641-060	☎0551-82-3737 ☎0551-61-7846	ID 천 jch

'갈릴리아' 천주교 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시목센터

2. 1998년도 결산

설립연월일 : 1997년 6월 3일(축성식은 9월 7일)

소재지	425-130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3 인세연립 다-101(지하)			
대표	유진 신부	전화	(0345)494-8483, 495-6964	FAX (0345)494-8483

1. 1998년 주요 사업보고

월/내용	주요 행사	비고
1월	천주교 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시목부서 신년하례식	엠마우스,안양이주노동자의 집과
	성지순례 및 피정 - 충남 미리내 성지	
2월		
3월	한국말교실 2기 시작	
4월	부활절 달걀나누기	
	Reunion of Ex-Koreans 마닐라	
5월	노동절행사 참가	
6월	남양성모성지 소풍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설문조사	경기남부 산업안전보건연구회와
	한국말교실 2기	
7월	종합건강검진 실시	경기남부 산업안전보건연구회와
8월	외국인노동자여름수련회 - 강원도 삼척	엠마우스,안양이주노동자의 집과
	Sportsfest -2개월간 농구, 볼링리그 참가	필리핀대사관주최
9월	갈릴리아 1주년 기념행사	미사와 다과회
10월	추석나들이-강원도 횡성, 경기도 여주,이천	
11월	대운동회	
12월	실직 외국인이주노동자 겨울나기사업시작	외노협과 함께
	마닐라 국제회의 참석	
	성탄절 행사	성탄미사와 파티,만찬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지원금	1,610,000원
		복지 지원금	6,389,260원
		소모품비	1,183,720원
		주,부식비,	1,954,080원
		공과금,	1,139,700원
		인건비,	13,500,000원
		퇴직적립금,	600,000원
1997년 이월금	1,868,930원	통신비	2,186,820원
주일미사헌금	7,437,100원	임대료	720,000원
후원금	29,275,312원	정기간행물	333,600원
수익사업/기타	531,415원	접대비	608,230원
참가비	2,860,000원	행사비	7,632,620원
		비품비	556,550원
		수선비	709,000원
		교통비	1,138,000원
		잡손실	567,600원
		잔액	1,148,577원
합 계	41,972,757원	합 계	41,972,757원

3. 1999년 사업계획

월별	사업계획
1월	갈릴리아 총회/ 안산지역 실업극복운동협의회 출범식
2월	AFC총회/ 의노협총회/ 외국인진료소시작(매주 24째 일요일-성당)
3월	일본견학/ 사무실 이전/ 수익사업/ 근로기준법강좌(5회실시)
4월	귀환프로그램 소개 및 공동체간부 훈련(3주간)/ 종합건강검진 I
5월	안산지역 농구,배구리그전(3주간)/ 강연회
6월	귀향프로그램의 실시
7월	Pro-life교육실시
8월	여름캠프
9월	갈릴리아 2주년기념 미사/ 추석나들이
10월	대운동회/ 음악회
11월	종합건강검진II
12월	성탄절행사

4. 1999년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12,500,000
		복지지원	1,000,000
		소모품/사무용품비	1,500,000
		주,부식비	1,000,000
		공과금	15,000,000
1998년 이월금	1,148,577	인건비	1,200,000
주일미사헌금	5,0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후원금	34,200,000	통신비	25,240,000
특별후원금	17,352,978	임대료	350,000
수익사업	8,888,445	정기간행물	300,000
행사참가비	3,000,000	접대비	500,000
		비품비	500,000
		수선비	500,000
		행사비	7,000,000
		교통비	1,200,000
		지원금	800,000
		예비비	300,000
합계	69,590,00	합계	69,590,00

광주 외국인 노동자센터 (KWANGJU MIGRANT WORKER'S CENTER)

설립년월일 : 1997년 9월 1일. 창립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16-11 무등교회 내
 대표 : 이사장/ 이철우 목사. 소장 / 김상집
 전화 : 062-971-0078. 팩스 : 062-971-0079

98년 주요 사업보고

월	주요 행사	비고
1월	사랑의 겨울나기(설 행사)	겨울 외투지급, 음식나누기
2월	외노협 총회 정기 이사회	
3월	명동성당집회 기장 광주노회 보고	
4월	소식지[외국인 노동자 국경 없는 나그네] 2호 발행	
5월		
6월	무료진료활동 시작 외노협 수련회	보건의료단체와 연합 경주 한화콘도
7월	무료진료	
8월	무료진료	
9월	야유회, 기선협 수익사업 무료진료	장성 백양사
10월	기선협 창립총회 무료진료	
11월	기선협 수련회 무료진료	수안보
12월	실직외노 겨울나기 사업 사랑의 겨울나기 일일찾집 성탄 외노 위안잔치 무료진료	외노협 무진사회복지관과 공동주최 외근선,하남YMCA와 연합

<1998 회계연도 결산서>

(98.1월-12월)

<수입>

	예산	결산	비고
전년이월		2,526,612원	전년도 이월금
교회지원금	3,500,000원	3,500,000원	
이사회비	4,500,000원	1,550,000원	
후원금	11,200,000원	9,321,000원	
실업극복기금		3,100,000원	실직외노 지원금
기타수입	3,000,000원	2,720,620원	일일찾집, 이자수입
합계	22,200,000원	22,718,232원	

<지출>

항목	예산	결산	비고
인건비			
소장	6,000,000원	3,000,000원	
사무국장	6,000,000원	6,000,000원	
소계	12,000,000원	9,000,000원	
사업비			
상담활동비	1,200,000원	868,800원	
홍보비	1,000,000원	147,560원	
행사비	2,000,000원	3,501,500원	실행사,야유회,외노위안의 밤
연대사업비	1,000,000원	558,600원	외노협,외선협,지역단체
소계	5,200,000원	5,076,460원	
실업			
식비		1,687,500원	112,500원×15명
난방비		750,000원	5만원×15명
의약품		50,000원	1만원×5명
실무자 인건비		600,000원	지역책임자
소계		3,087,500원	
운영비			
회의비	600,000원	181,000원	이사회
통신비	1,200,000원	1,130,100원	전화, 컴퓨터 통신료
사무비	1,200,000원	384,650원	
도서비	300,000원	170,000원	신문
경상비	1,000,000원	1,219,280원	컴퓨터부식비,연료비
비품구입비	500,000원	358,000원	복사기등
소계	4,800,000원	3,443,030원	
예비비	200,000원	49,200원	
총계	22,220,000원	20,656,190원	
잔액		2,062,042원	

1999년 사업계획(안)

㉔ 목표 및 방향

1. 안정된 재정구조 마련
2. 실무구조의 정착
3. 사업의 집중화 및 특화

㉕ 사업

1. 상담사업

- 1) 노동상담 - 산재, 체불임금, 공장내 폭행 등.
- 2)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
- 3) 기타상담 - 결혼, 송금, 출국문제 등.

2. 연대사업

- 1) 외노협 - 실무자 일본 스터디 투어
- 2) 기장 외선협 - 실무자 학습 모임.
- 3) 광주지역단체 - 외근선, 실업대책위 등

3. 홍보사업

- 1) 새 홍보전단 제작 및 기존 스티커 부착
- 2) 외국인 전용 소식지 [외국인 노동자 **극경** 없는 **아고에**] 발행
/ 외노관련 정책 및 기사를 조사하여 한글,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A3용지 크기로 매월 발행하여 소식지 및 홍보 수단으로 배포
- 3) 광주의노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4. 기획특화사업

1) 한글교실

대상 / 광주 인근지역 외국인 노동자
강사 / 교회와 이사님,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6명
강의계획 /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씩 단계별 학습
강의 단계 / 단계별 3개월 과정
초급 - 읽고 말하기
중급 - 쓰고 뜻 풀이

고급 - 적용 및 대화

모집인원 / 20명

홍보 및 모집기간 / 99년 1월 11일(월)부터 30일(월)까지

개강일 / 99년 1월 31일(일) 오후 6시

2) 무료의료진료 / 매월 1회

장소 /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 및 기타공간

진료팀 / 광주전남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

자원봉사 / 교회 식구와 차현주 이사님, 대학생

5. 조직화사업

- 1) 후원화-소식지 구독회원 포함
- 2) 자원봉사회
- 3) 각 나라 외노공동체
- 4) 외노 예배참여

6. 문화사업 및 이벤트 행사 / 무료진료 및 한글교실과 연계하여 실시

- 1) 우리문화탐방 - 지역 문화 유적지 탐방
- 2) 노래(장기)자랑대회 - 관련단체와 연대
- 3) 체육대회 - 배드민턴, 체스, 족구 등
- 4)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 - 사랑의 겨울나기

7. 재정 및 결연사업

- 1) 일일차집
- 2) 외노결연사업
민족간의 이질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외노와 한국인 가정과의 결연

8. 쉼터 운영

다치거나 실직해서 오갈 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급식과 숙소제공

99년 주요사업계획

1999년 예산(안)

(99.1-99.12)

<수입>

항목	98년 예산	비고
교회지원	10,000,000원	
이사회비	4,500,000원	이사회비 15명*30만원
후원회비	10,000,000원	
실업기금	9,300,000원	국민운동본부 실직외노 겨울나기사업 지원금
기타	2,062,042원	전년도 이월금
합계	35,862,042원	

<지출>

항목	99 예산	비고
인건비	7,200,000원	60만*12
건소장 활동비	3,600,000원	
비소계	10,800,000원	
사업비	1,200,000원	
상담활동비	1,000,000원	소식지발간
홍보비	2,500,000원	체육대회, 노래자랑, 문화유적 탐방
행사비	2,400,000원	
한글교실	2,400,000원	
무료진료	1,000,000원	외노협회비, 각종연대사업
연대사업비	10,500,000원	
비소계	5,062,500원	112,500원*15명*3개월
실업기금	2,250,000원	5만원*15명*3개월
난방비	150,000원	1만원*5명*3개월
의약품	1,800,000원	60만원*3개월(지역책임자)
실무자 인건비	9,262,500원	
비소계	600,000원	이사회, 실무자회 등
운회비	1,200,000원	전화, 컴퓨터통신
통신비	1,200,000원	
사무비	300,000원	신문잡지 구독
도서비	1,000,000원	연료비, 茶 등
경상비	500,000원	
비품비	4,800,000원	
비소계	499,542원	
예비비	35,862,042원	
합계		

월	주요 행사	비고
1월	실직외노 겨울나기 사업 정기 이사회 1기 한글교실 개강 무료진료	
2월	실직외노 겨울나기 사업 외노협 총회 소식지 발행 무료진료	한,영,중,인도네시아어
3월	실직외노 겨울나기 사업 실무자 일본 스터디 투어 무료진료	외노협
4월	홈페이지 개설 농공단지 대상 홍보작업 무료진료	광주시민단체 자봉과 함께 대대적으로
5월	봄철 야유회 및 우리문화 탐방 소식지 발행 무료진료	망월동 및 고인들 공원 등
6월	1기 한글교실 졸업식 무료진료	
7월	2기 한글교실 개강 무료진료	
8월	실무자 수련회, 휴가 소식지 발행 무료진료	자체 실무자 및 자봉 수련회
9월	외노 장기자랑대회 무료진료	추석맞이 음식나누기
10월	외노결연사업 무료진료	
11월	외노 체육대회 일일찾집 소식지 발행 무료진료	배구, 배드민턴, 체스 등 무진사회복지관
12월	성탄 외노 위안잔치 2기 한글교실 졸업식 무료진료	연관단체

구미 카톨릭근로자센터

1999년 사업계획

1. 단체 소개 및 주요활동

현재 구미지역에 1087명(98년 6월 통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타지에서 생활을 하므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으므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 사업과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 <1> 신앙지도(미사, 피정)
-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글교실
- <3> 무료 의료지원 활동
- <4> 문화 지원 사업(관광 노래자랑 문화공연 등)
- <5> 경제적 지원활동(겨울 옷 바자, 후원회원 성금 모금 사업)

2. 99년 주요 사업계획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설날맞이 행사

-일시 : 2월 14-16 (1박 2일)

-장소 : 해평 청소년 수련원

-목적 : 집단생활을 통한 협동정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통한 친선율도모한다. 작업장 내에서의 문제를 상담 받고, 그들의 전반적인 노동여건과 환경, 근무조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보하에 그들을 도와주고자 한다.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제 4회 문화유산 답사

-일시 : 4월 18일

-장소 : 영주 부석사

-목적 : 구미지역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장시간 노동, 교통, 언어 문제로 한국의 문화제를

관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여 한국을 홍보하고 적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 필리핀 노동자 농구대회

-일시 : 5월 9일, 10월 10일

-장소 :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

-목적 : 필리핀 노동자들의 여가선용과 스포츠를 통한 연대감 함양

● 외국인노동자 여름캠프

-일시 : 7월 25일-26일 (1박 2일)

-장소 : 미정

● 추석맞이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일시 : 9월 24일

-장소 : 카톨릭문화관

-목적 : 각 나라별 민속무용과 음악을 공연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라는 일체감을 높이고자 한다.

● 겨울 옷 장터

-일시 : 11월 14일

-장소 : 카톨릭 센터 2층

대구 구민교회 외국인 노동자 시업보고 및 사업계획

1. 1998년도 주요사업보고

월	주요행사	비고
1월		
2월	웃놀이, 노래자랑	
3월		
4월	체육대회	
5월		
6월		
7월		
8월	여름캠프	
9월		
10월	각국 민속음식 만들기	
11월		
12월	Sing and Danceing Festival	

2. 1999년도 주요사업계획

월	주요행사	비고
1월		
2월	웃놀이, 노래자랑	
3월		
4월	체육대회	
5월		
6월		
7월		
8월	여름캠프	
9월		
10월	각국 민속음식 만들기	
11월		
12월	Sing and Danceing Festival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설립년월일 : 1996년 10월 26일

소재지	부산시 진구 전포2동 193-9 송광도매릿집 4층 614-042				
대표	정귀순	전화	051-802-3438	FAX	051-809-4722

(1) 1998년 주요 사업보고

월	주요행사	비고
1월	겨울 캠프,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설날 큰잔치	
2월	체육대회-연제공동체와 외국인노동자의 친선 축구, 배구경기	
3월		
4월	부산지역 상담원 교육 I	
5월	봄 야유회	
6월		
7월		
8월	여름 캠프	
9월	부산지역 상담원 교육 II	
10월	창립2주년 행사, 한글교실 졸업식, 추석맞이 부산시내 관광	
11월		
12월	송년회	

(2) 1998년도 결산 : 시간이 없어 주어진 양식에는 맞추지 못합니다.

관	항	목	금액
수입	이월금	97년이월금	141,845원
	회비	정기회비	11,603,000원
		특별회비	3,486,970원
		소계	15,089,970원
	기타	행사후원금	1,091,845원
		부수입	1,045,835원
		소계	2,137,680원
계		17,369,495원	
지출	운영비	제세공과금	7,219,591원
		신문도서비	472,400원
		복리후생비	945,180원
		사무용품비	1,342,660원
		각종우편요금	149,200원
		연료비	607,000원
		잡비	154,200원
		소계	1,0890,230원
	사업비	연대사업비	847,624원
		출장비	703,700원
		홍보비	5,586,171원
		각종 행사비	1,068,380원
		기타	122,040원
		소계	8,327,915원
	인건비		1,800,000원
	계		21,018,146원
	잔액		- 3,648,651원

(3) 1999년도 사업계획

99년 사업방향과 목표

1. 99년 상황의 예상 및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IMF 여파로 인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상황은 이미 최저치로 떨어져 있어 더 이상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출국할 사람들은 이미 출국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계속 체류를 원하고 있으며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앞으로 업체 부도율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실직자들은 증가하기보다 일정한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체불 상황은 별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으나,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의 호전은 곧 외국인노동자의 재유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시 심각한 문제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다시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의 주체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년간의 실천들을 토대로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2. 사업방향

98년 사업평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겠다.

- 첫째, 외국인노동자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일
- 둘째,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관한 활동의 폭을 확대하는 일
- 셋째, 아시아 지역내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 간의 구체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활동
- 넷째,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내부정비

세부적인 사업내용

1. 외국인노동자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강화

1) 상담사업

- ♣ 상담의 전문화 : 상담원 교육 실시(최소 연2회 정도)
- ♣ 상담원 확보

2) 영자신문 ⇒ 편집실장안 참조

3) 외국인노동자 조직화사업

기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조로 조직화 한다.

→ 사무국장의 일본방문 이후 사례검토와 동시에 구체적 안을 준비한다.

협약안) ♣ 99년초 외국인노동자 등록작업 → FWR 등록증 발급

♣ 중국교포 상조회 구성여부 검토

4) 한글교실

5) 진료사업

6) 외국인노동자 구조기금사업 및 쉼터마련

♣ 기금현황(별첨)

♣ 쉼터마련을 위한 노력

2.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관한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는 일

1) 인권모임 주최 외국인노동자 및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수준 향상을 위한 세미나개최
내부세미나 연 2회 정도 / 공개적인 세미나는 협의요

2)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 스스로의 모임 구성을 위한 노력

3) 대학생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 해양대학교 동아시아 학과의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

♣ 대학생 동아리 혹은 학생회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프로그램 개최(문화제, 체육 대회, 사진전, 초대)

4) 연대사업

♣ 외노협 :

♣ 부산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단체 간담회 :

♣ 민주노총(지역본부)와 외국인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협의 및 연대모색

- 국내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한 공동행사 및 자매결연 등도 협의

♣ 지역내 인권 및 시민단체와의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3. 아시아 지역내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 간의 구체적인 연대를 형성과 활동 (국제 연대사업)

⇒ 아시아 지역내 구체적인 교류 및 연대단체를 설정하여 연대의 수준을 높여나간다.

♣ 일본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방문 : 1월말 외노협 차원에서 방문예정

→ 사무국장의 일본방문 이후 논의

가나카와 시티유니온 및 기타 단체 중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단체설정 및 교류

♣ 그 외 아시아지역 나라들과의 연대모색

→ 아시아 지역내 적극적 교류단체를 설정하여 정보교류

→ 외노협 차원의 국제회의에 참여하도록 노력(연 1~2회)

4.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내부준비 (사무국장안 참조)

1) 사무국

2)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 체계정비

3) 후원회원

♣ 후원회원 정비

5. 99년 행사일정

☞ 2월 14~15일 : 겨울캠프

☞ 5월 1일 : 노동절 기념행사

☞ 5~6월 : 봄나들이 (통도사포교원 후원)

☞ 8월 초 : 여름캠프

☞ 9월 25/26 : 추석행사 (나들이 및 가정초대)

☞ 10월 : 2주년 기념행사

☞ 12월 : 송년의 밤

6. 기타 사업

1) 사형수 전채천씨 구명활동

2) 페스카마호 및 중국교포 수감자 돌보기

3) 박삼수씨 지원

위의 행사일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 1999년도 예산안

1. 월별 지출예산안

구분	세부항목	내역	참조
사무실 유지비	① 집세	380,000원(관리비 70,000원 포함)	
	② 전기세	50,000원	
	③ 전화세	170,000원	
	④ 통신비	25,000원	
합계	625,000원		
사무실운 영비	① 신문4종	35,000원	
	② 부식	20,000원	
	③ 사무용품	30,000원	
	④ 도서비	20,000원	
	⑤ 경조사비	30,000원	
	⑥ 우편요금	25,000원	
	⑦ 예비비	100,000원	
합계	350,000원		
인건비	800,000원	2명	
합계	800,000원		
홍보용 제작비	① 영자신문 인쇄	4면: 900부 70,000원 8면: 900부 110,000원 KOPI: 100부 10,000원	
	② 영자신문 발송비	40,000원	
	③ 회보 인쇄	350부 110,000원	
	④ 회보 발송비	330원×350부 =115,500원	
	⑤ 봉투(대,소)	45,000원	
합계	500,500원		
일상적사 업비	① 페스카마 후원회비	10,000원	
	② 한글교실 지원비	10,000원	
	③ 진료 지원비	20,000원	
합계	40,000원		
총합계		2,315,500원	

2. 특별행사비

월	행사명	내역 (98년도 기준)
1월	겨울캠프	1,000,000원
2월	설날행사	700,000원
5월	봄 야유회	1,200,000원
8월	여름캠프	1,100,000원
10월	추석행사	700,000원
10월	창립기념행사	300,000원
12월	송년회	400,000원
합계	5,400,000원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Bucheon Migrant Workers' House)

설립연월일 : 1995년 3월 31일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5

대표 : 고 태 훈 전화 : 032-654-0664 전송 : 032-668-0077

1. 4차년도(1998년) 사업보고

(1) 주요사업내용과 사업평가(안)

- ① 노동/생활상담 ② 쉼터운영 ③ 의료지원 ④ 이주노동자, 공동체 교육
 ⑤ 문화활동지원 ⑥ 홍보/지역활동 ⑦ 타 상담지원단체와의 연대 ⑧ 행사

▶ 4차년도에 계획했던 이상 여덟가지 계획은 사정상 일시 중단되었던 사무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었다.

▶ 이중 노동/생활상담과 쉼터운영, 의료지원은 기존 가지고 있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상담과 관련하여서는 98년 10월부터 불법체류이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정부정책을 유도하였고(물론 우리 상담소만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는 아님), 생활상담과 관련해서는 실업극복 국민운동의 지원을 받아 실업 이주노동자에게 겨울나기를 위한 생계비·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 공동체 간부를 중심으로 공동체조직과 운영, 언어, 노동법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공동체활동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바람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 98년 8-9개월에 이르는 긴 준비기간을 거쳐 99년 1월부터 시작한 각종 교육, 문화모임은 점차 안정되어가는 추세이다. 교사는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마땅한 교육실이 없어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부천시청의 도움을 받아 오정동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너무 외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 상담소 개소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홍보/지역활동이 역시 가장 취약한 사업으로 지적될 듯 싶다. 주체적이고 활발한 홍보/지역연대활동이 요구된다.

▶ 99년 1월부터 부천시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1-3월까지 2인, 4월부터는 1인 지원예정

(2) 자체 주요행사

- 98 3/15 미안마 공동체 행사 - 더봄페스티벌(미안마 노래그룹 초청공연)
- 4/25 부처님오신날 기념 하루출가 수련회
- 7/26 수영대회(룸비니 수영장)
- 11/1 네팔공동체 총회(회장단 선거)
- 11/22 미안마 공동체 행사 (미안마 불상점안식 - 석왕사)
- 99 1/10 한국어 컴퓨터교실 개강
- 1/17 노래모임 개강
- 99 1/17 스리랑카 공동체 발족

(3) 공동행사

- 98 7/2 '나와 우리' 회원을 위한 이주노동자 문제 강좌
- 7/5 '이주노동자와 함께 떠나는 강화도 답사' - 나와우리
- 12/20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 - 새롬교회 공동주최

(4) 외노협 공동사업

2. 5차년도(1999년) 사업계획

●지속사업

1. 노동/생활상담
2. 쉼터운영
3. 실무자 교육
4. 이주노동자공동체, 공동체 간부교육
5.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6. 후원회 조직과 운영
7. 이사회 확대
8. 기타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①한국어교육 : 현재 6개월 단위 기초반, 중급반 운영

②컴퓨터교육 : 3개월 단위 1개반 운영

기간 : 1998년 2월 ~ 1999년 1월

- ③노래모임 : 노래와 악기연주에 재능이 있는 다국적 그룹
- ④탁구모임 :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취미모임
- ⑤귀화희망자를 위한 역사·문화교육

●복지기금 조성

●홍보/지역사업

●주요행사

1. 5월 부처님오신날 행사
2. 6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야외수업
3. 7-8월 여름캠프
4. 10월 체육대회
5. 12월 크리스마스 행사
6. 기타

●외노협/전국 상담소 연대사업

1. 의료공제회 구성
2. UN조약 비준 캠페인
3. 연수생제도 폐지와 이주노동자보호법 제정 캠페인

내역			비고
수	시지원비	9,000,000	
	이사회비	6,560,000	
	후원비	1,070,000	
	행사수익금	2,709,320	
입	기타	218,996	
	합계	19,558,316	
지출	컴퓨터운영비	1,247,960	
	상담소운영비	17,049,470	인건비, 경상비
	홍보비	181,160	홍보물 제작 및 발송
	연대사업비	180,000	연대단체 회비 외
	교육사업비	313,500	
	지원사업비	326,000	공동체 지원 외
	행사비 외	1,244,100	크리스마스 행사 외
합계	20,542,190		
잔액		- 983,874	

* 특별사업비

사업명	지원금액(원)	지원처
부처님오신날 행사	5,000,000	조계종 총무원
실직이주노동자 겨울나기 지원	60,000,000	실업극복국민운동
네팔인 비비씨 후원	2,000,000	후원금 모금활동
합계	67,000,000	

제 5차년도(99년) 예산(안)

내역		금액(원)	비고	
수입	시지원비	16,800,000	확보	
	이사회비	9,960,000	예상	
	기금 및 후원금	22,640,000	예상	
	합계	49,400,000		
지출	경상비	인건비	18,000,000	1,500,000 x 12 (50% 시지원)
		컴퓨터운영비	2,400,000	200,000 x 12
		상담소운영비	3,300,000	275,000 x 12
	소계		23,700,000	
	지속사업비	교육문화사업비	7,800,000	650,000 x 12 (전액 시지원)
		상담지원사업비	3,900,000	325,000 x 12
		홍보사업비	2,000,000	
	소계		13,700,000	
	특별사업비	부처님오신날 행사	3,000,000	
		크리스마스 행사	3,000,000	
		여름캠프	3,000,000	
		기타	3,000,000	
	소계		12,000,000	
	합계		49,400,000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

1998년도 주요행사

월	주요행사	비고
1	자원봉사자 수련회 (3박 4일) - 제주도	
2	* 중국동포 임태철, 정정자, 정관옥, 미얀마 노동자 좌우린님 장례식 * 몽골 노동자 협회 결성. * 필리핀 노동자 안토니오 로벨로조님의 시신, 본국으로 송환.	
3	* 중국 동포 임규강, 강만금, 이명현, 박학선, 이규동, 김영만, 김학만님의 장례식. * 일요 무료진료시 혈액검사 및 X-ray 검사. * 롯데복지재단에서 방글라데시인 하룬씨와 가나임 세바스틴씨의 재해에 대한 위로금 지급. * 방글라데시 파운데이션 주최 <독립기념일 행사> 개최. * 창원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 이성주 간사 실습	
4	*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10여명이 방문. * 몽골인 바트 센드님의 장례식. * ILO협약 비준을 위한 ILO협약 전문가들의 설명회 및 세미나 참석 *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	
5	* 자원봉사자 수련회. * 서울대학교 대동제에 참석-각국 문화와 음식을 알리는 장터마련. * 백십자 봉사단 위문공연. * 상담소 내 샤워장 준공. * 국제 결혼한 가정 모임.	
6	* 안상주 목사님 - 상담소 실습. * 11일 중국동포 심세광, 김철남, 홍옥자, 양공찬, 방글라데시 하미트 알리님의 장례식. * 몽골노동자협회 - 몽골인 축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 김영희, 김창식님의 장례식. * 몽골독립 77주년 기념식. * 14~16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수련회(경주). * 외국인노동자 98여름캠프(용두해수욕장/ 3박4일- 참석인원 210명)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교포 심상령, 김상모, 미안마 칠라님의 장례식. * 김해성목사, 김홍인(자봉회장) 몽골방문. * 임진각 통일출전 참가. * 국제 결혼한 가정 모임 < 지구촌 사랑 나눔터 > 발족 * 중국교포 고 김일룡님 사망사건 군산교도소 진상조사.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민중회의 이주노동자 워킹> 참가 * 중국교포 장옥녀님의 장례식. * 한신대학 신학과 실습-10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방극윤 이사장 방문. * 성남시 김병량시장(외노집 고문) 방문. * 자원봉사자 유준수, 김수정 결혼식. * 이해학 이사장, 김해성 목사 중국방문. * 중국동포 문현택 화백 근로자예술제 은상 수상. * 자원봉사자 MT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교포 강기화, 정향숙, 이동호님의 장례식. * 실무자 신흥주님 김이현양와의 결혼식 * 백십자 봉사단 중국동포, 외국인 노동자 무료 이발. 	
12	9일 이주노동자 권리선언 및 집회(명동성당)	
정 기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실 * 일요 무료진료 (양방, 한방) * 무료 이.미용 * 컴퓨터 이용 * 의료공제회 - 시설의료보험조합운영 * 국제 결혼한 가정 모임 지원활동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회보 발행 * 몽골인과 중국 및 교포를 위한 예배 * 노동, 생활상담 	

1998년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 결산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사무관리비	7,574,943
		컴퓨터관리비	25,145,600
교단후원	40,000,000	복지비	7,620,410
일반후원	18,751,880	행사비	5,033,700
해외후원	15,000,000	홍보비	2,355,000
		활동비	31,200,000
		대외사업비	2,730,000
합 계	81,617,060	합 계	81,659,659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99 - 12 호 ☎ 493 - 7353 (Fax겸용)

(1997. 7. 23 설립)

99년 운영계획

1. 목 표

- ① 상담을 중심으로 하며 한글교실, 외국인진료, 각종 행사를 지역내 연대사업으로 추진
- ② 상담실무의 체계화, 상담인력의 확보
- ③ 지역내 노조 / 노동자회 등과의 연대사업 추진
- ④ 후원회 조직

2 사 업

① 상 담

98년 파키스탄과 중국교포를 중심으로 진행된 상담을 안정화하고(외국인자봉/실무자 확보 등), 기타 한국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상담 구조 마련

② 연 대

- 원곡외국인노동자진료소 : 2월 14일 개소, 매월 2, 4째 일요일, 장소 원곡성당, 지역내 인 의협소속 의사, 갈릴리아, 선교센터, YMCA 등 지원 / 참가

- 한글교실 : 4월 개소 예정, 장소 YMCA, 갈릴리아, 선교센터, YMCA 지원 / 참가

- 노조 / 노동자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와의 연대의식 제고

③ 홍보 / 후원

소식지 '땅끝까지' 2개월에 1회 발간

3. 주요행사

	주요행사	비고
1 월	소식지발행	
2 월	설날행사 / 원곡진료소 개소	
3 월	노동자회 간담회 / 소식지발행	
4 월	한글교실 개소	
5 월	노동절행사 / 지역내 노조간부 간담회 / 소식지발행	
6 월		
7 월	여름캠프 / 소식지발행 / 설립2주년기념	
8 월		
9 월	추석행사 / 민속촌 야유회 / 소식지발행	
10 월		
11 월	소식지발행	
12 월	성탄절행사	

인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설립년월일 : 1999. 1.26

소재지 : 안산시 원곡동 749-2 (T)0345-492-8785,6 (F)0345-492-4722

대표 : 박천응 목사

(1) 1998년 주요 사업 보고

월	주요 행사	비고
2월	방글라데시 노동자 센터 개설	
5월	컴퓨터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농장 시작	
8월	방글라데시 복지 협의회 정기모임(장소:안산제일교회) 상반기 한글 교실 이수자 수료식 실무자, 자원 봉사자 MT (장소:대부도)	
9월	외국인 노동자 산재 문제 대책에 대한 토론회(장소:산업안전연구원)	
10월	외국인 노동자 추석 나들이(장소:도봉산)	
11월	목사님 APEC 민중회의 참가 및 BMC 개설 건으로 출국 방글라데시 현지에 BMC 개설 방글라데시 복지 협의회 4차 총회	
12월	각 나라 성탄 축제 각 나라 대표자와 연말 평가회	

(2) 1999년 사업 계획

월	사업 계획	비고
1월	'99 1기 한국어 학당 개강 컴퓨터 확장과 정비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무료 진료
2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설날 큰 잔치 개최(장소: 안산올림 픽 기년관, 14일) 제1기 이주 노동자 학교 입학식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무료 이발
3월	등반대회, 1차 자료집 발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대표자 연석회의
4월	'99 2기 한국어 학당 개강	
5월	제2기 이주 노동자 학교 개강 체육대회	
6월	2차 자료집 발간	
8월	각 국가별 여름 수련회, 대표자 수련회 개최 '99 3기 한국어 학당 개강	
9월	추석 나들이 3차 자료집 발간 제3기 이주 노동자 학교 개강	
12월	대표자 평가회 4차 자료집 발간 성탄 행사	

전.진.상사회복지관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설립년월일: 1969년 9월 (이주노동자의 집 1997년 4월 7일)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안양 4동 676-136 전.진.상사회복지관				
대표	이금연	전화	0343)443-2876	FAX	0343)446-2876

(1)1998년 주요 사업보고

월	주요 행사	비고
2월	자원봉사자MT(치악산)	
4월	부활절 행사(부활계란 나누기, 파티)	
5월	스리랑카 노동자 결혼식(혼배미사와 피로연) 소풍(민속촌)	58명 참가
6월	체육대회 여름 답죽파티	117명 참가
8월	여름캠프(강원도 삼척)	
10월	추석행사	
12월	크리스마스 파티(24일 베트남, 26일 필리핀, 27일 스리랑카)	

2)1998년도 결산

항목	내 용	총소요 예산	지출	수입	
경상비	인건비	15,306,000	15,306,000	0	
	문구구입비	60,000	60,000	0	
	신문, 잡지 구독료	120,000	120,000	0	
	자동차 유지비	811,480	811,480	0	
	연료비,전화,전기세	600,000	600,000	0	
사업비	외노협회비	600,000	600,000	0	
	상담활동비	1,200,000	1,200,000	0	
	교육비(실무자,봉사자)	500,000	500,000	0	
이주노동 자지원비	쉼터운영비: 식비	3,010,000	970,000	2,040,000	
	난방비	2,000,000	2,000,000	0	
	의료비 지원	2,267,940	917,940	1,350,000	
	항공비 지원	700,000	700,000	0	
	기타	126,000	126,000	0	
행사비	봉사자 MT.	198,990	118,990	80,000	
	부활절, 파티	100,000	100,000	0	
	소풍	691,800	109,800	482,000(회비)+100,000(후원)	
	자기성장프로그램	2,000,000	0	2,000,000(회비)	
	체육대회	240,700	200,000	40,700	
	여름캠프	2,000,000	0	1,200,000(회비)+800,000(후원)	
	추석행사	261,800	161,800	100,000(후원)	
	성탄절파티	130,000	100,000	30,000(후원)	
	합계		31,574,710	23,352,010	8,222,700

(3) 199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월	일	제 목	내 용
1월	14(일)	설 나들이	비원, 경북궁 나들이
2월	27(토) ~ 28(일)	자원 봉사자 MT.	봉사자의 자세, 역할 / 이주노동자 실태/'99년 계획
3월	14(일)	근로기준법 교육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교육
4월	3(토) ~ 4(일)	부활 피정, Party	함편익 신부
5월	2(일)	소풍	
	6(목) 또는 기금)	자기 성장 프로그램 "Am I Happy?"	Earnest Tan-봉사자, 외노공동체 교육
6월	20(일)	체육대회	
7월	4(일)	성교육	성교육 및 부인병 질환 검사
8월	1(일) ~ 3(화)	여름 캠프	
9월	25(토)	추석 행사	외국인 노동자 장기자랑
12월	25(토)	성탄절 파티	

(4) 1999년도 예산

항목	내 용	예 산	지 출	수 입	
경상비	인건비	17,000,000	17,000,000	0	
	문구구입비	60,000	60,000	0	
	신문, 잡지 구독료	120,000	120,000	0	
	자동차 유지비	1,200,000	1,200,000	0	
	연료비, 전화, 전기세	600,000	600,000	0	
사업비	외노협회비	600,000	600,000	0	
	상담활동비	1,200,000	1,200,000	0	
	교육비(실무자, 봉사자)	500,000	500,000	0	
이노 지원비	쉼터운영비(식비, 연료비, 전기, 방세 등)	7,200,000	3,120,000	4,080,000	라파엘지원금
	의료비	500,000	500,000	0	
	예비비	500,000	0	500,000	(후원금)
행사비	봉사자 MT.	300,000	100,000	200,000	(회비)
	부활피정, 파티	600,000	100,000	500,000	(회비)
	소풍	1,100,000	100,000	1,000,000	(회비)
	자기성장프로그램	2,000,000	0	2,000,000	(회비)
	체육대회	600,000	100,000	500,000	(회비)
	여름캠프	1,700,000	0	1,700,000	(후원금 500,000/회비)
	추석행사	600,000	100,000	500,000	(회비)
	성탄절파티	600,000	100,000	500,000	(회비)
	합계		36,980,000	25,500,000	11,480,000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은 결산과 예산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살림의 집

설립년월일 : 1991년 4월 20일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 33-9				
대표	이정호 신부	전화	0346-594-5825	팩스	0346-594-1135
Web site	www.shalomhouse.or.kr	E-mail	mission@shalomhouse.or.kr		

1. 1998년 주요 사업보고

월	주요 행사
1월	2일 신년하례모임으로 98년 살림의 집 업무를 시작 3일 IMF체제 하의 실직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시작 27일 외국인노동자 위로의 밤(올림픽 경기장)에 32명 참석 30일 필리핀 유아 사망-지원
2월	살림의 집 보충공사(부엌 등) 히라노 교수의 이주노동자 실태 조사 지원
3월	크리스찬 매거진과 기독교 방송에 살림의 집 소개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금주, 도박, 마약 등을 하지 말 것을 권면
4월	
5월	외국인노동자 살림의 집 기능 변화
6월	
7월	필리핀 사제 바가노 귀국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와 외국인노동자 실태 조사
8월	
9월	일본 성공회 동경 교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이정호 신부, 이 안셀모, 김바나마)하여 동경 교구 소속의 이주노동자 상담소인 "카파티란(Kapatiran)"과 기타 관련 단체 방문을 하고 협의 성공회대에서 있는 성소주일 행사에 이주노동자 참석
10월	이주노동자 겨울나기 프로그램을 위한 홍보캠페인 시작, 성공회 신문과 지방신문에 광고
11월	이주노동자와 가족,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 "음악이 있는 마을"의 공연
12월	실직 이주노동자를 위한 쉼터 및 공부방 꾸미기

2. 1998년도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실업기금 지원	13,240,000	실업기금 지급	13,240,000
교구지원	5,400,000	운영비	5,500,000
후원회 모금	8,000,000	인건비	5,400,000
합계	26,640,000	합계	24,140,000

3. 1999년도 사업계획

월	주요 행사
1월	한글반 시작(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3개반, 주 2회 수업) 실업기금 지원 및 생필품(의류, 식기, 이불 등) 지원 자원봉사자 워크샵 (총 7명 - 한글반 6명, 상담 소식지 제작 1명)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상담 시작
2월	구정 행사(떡국 나눠먹기, 민속놀이 함께하기) 실업기금 지원, 심층상담, 소식지 제작(한글 및 영문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광고 보충, 자원봉사자 MT
3월	한글반 재편성(Level test를 통한 분반), 실업기금 지원, 심층상담, 숙소방문
4월	체육대회(국가별 축구, 농구팀 경기, 배드민턴 개인전) 소식지 제작
5월	봄 소풍
6월	소식지 제작, 숙소 방문 및 개인상담
7월	여름캠프 (1박 2일)
8월	소식지 제작, 자원봉사자 워크샵
9월	추석행사(송편빚기, 민속놀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성소주일 행사 참석
10월	가을 체육대회, 소식지 제작
11월	
12월	크리스마스 행사(서울 시내 야경 투어, 각 나라별 민속음악 공연, 서울 대성당) 연말 결산, 소식지 제작

4. 1999년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실업기금 지원	30,000,000	한글반 운영지원	1,000,000
교구지원	4,000,000	의료서비스 지원	1,000,000
후원회 모금	16,500,000	쉼터 및 사무실 운영	1,500,000
		홍보비	1,000,000
		특별 행사비용	3,000,000
		인건비	12,000,000
		교육비	1,000,000
		실직 노동자 지원	30,000,000
합계	50,500,000	합계	50,500,000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설립년월일: 1992.3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27-1 우신빌딩 3층

대표: 신윤희(서강대 교수)

전화: 795-5504

전송: 749-6055

99년도 사업계획

- 한국어교실
- 소식지발간(회원용)
- 자원봉사자 모임(수련회)
- 외국인 상담자료집 만들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소재지	서울 종로구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대표	이정옥	전화	708-4181~3	팩스	708-4186

(1) 1998년 주요사업 보고

월	주요행사	비고
1월	여성 외노교육프로그램 "해바라기" 준비	
2월	여성 외노교육프로그램 "해바라기" 센타 섭외	
3월	여성 외노교육프로그램 "해바라기" 1	
4월	여성 외노교육프로그램 "해바라기" 2	
5월	여성 외노교육프로그램 "해바라기" 3	
6월	여성 외노교육프로그램 "해바라기" 4	
7월	여성 외노교육프로그램 "해바라기" 5	
8월	여성 외노교육프로그램 "해바라기" 6	
9월	외노센타 설문조사	
10월	외노센타 설문조사, 자료집 제작	
11월	외노센타 설문조사, 자료집 제작	
12월	교육자료집 [해바라기] 발간	

(2) 1998년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서울시 여성복지과 본 회		해바라기 진행 상담비용	
합계		합계	

(3) 1999년 주요 사업계획

월	주요행사	비고
1월	해바라기 준비, 외국인여성노동자 매춘실태조사(-10월까지)	
2월	해바라기 준비	
3월	해바라기 진행 (센타1)	
4월	해바라기 진행 (센타1)	
5월	해바라기 진행 (센타2)	
6월	해바라기 진행 (센타2)	
7월		
8월		
9월	해바라기 진행 (센타3)	
10월	해바라기 진행 (센타3)	
11월	외국인여성노동자 매춘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12월	외국인여성노동자 매춘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4) 1999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서울시 여성복지과 본 회 세계기도일 세계본부		해바라기 여성외노 매춘실태조사 상담비용	
합계		합계	

※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예결산을 생략합니다.

1. 정책사업 보고

Epilogue

: IMF 지배 체제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노숙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차갑게 식어갔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 차별 분위기를 부추기 듯 중소기업청을 필두로 “외국인노동자의 일자리에 한국인 실직자를 대체고용하겠다”는 정책을 펴나가며 이주노동자를 이 땅에서 내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연이은 부도와 정부의 단속설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해고 0순위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는 실정이었다고 그들에게 당장의 생계비가 아쉬운 실정이었다. 체불임금과 산재 보상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정부가 유화책으로 내놓은 '자진출국 기간 연장-벌금 면제'조차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제, IMF는 한국인에게 “울창이적 시절”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우리에게도 남의 땅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언젠간”이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움켜쥐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제는 한국 노동자가 캘리포니아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호주로, 일본으로 불법 노동자가 되기 위해 떠나고 있고, 정부는 취업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전문인력을 헐값에 대량 팔아치우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선 이주노동자의 역사가 그래왔듯이 꾸준하고 은근하게 이주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그들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웬만한 국제회의에서는 언제나 이주노동자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한다. 이들 이주노동자 조직과 그 지원 단체들은 상호간 교류와 연대에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사업 A: 벌금제도 철폐하고 자율귀환 보장하라!

벌금 면제를 미끼로 한시적인 내몰이를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외노협은 상반기 내내 부당한 강제출국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즉 이들이 정말 원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선(先) 의지를 보인 후 귀환에 장애가 되고 있을뿐더러 과도한 벌금 제도를 철폐하라는 요구였다.

1)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와 벌금제도의 양면성이 외노협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외노협이 전국에 있는 회원단체 중 10개 상담소를 샘플링하여 3월 9일부터 14일, 일주일 간 조사한 결과는 강제출국의 압력에 밀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왜 출국을 하지 못하는가를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들의 노동 피해 사례의 심각성은 언론에 자주 인용 보도되고 있다.

2)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 센터를 개소하고 전국의 상담단체들은 비상 체제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 경제실천불교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등 이 사안에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4월 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우리는 민주노총 한 칸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여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전화로 노동상담을 할 수 있는 HOT LINE을 설치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수도권지역에서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순번을 정하여 당직을 서는 한편 대(對)정부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이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의 조직적 대응을 논의하였고 광주에서는 지역 인권단체들의 연대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미해결 상태에서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나 상담기관을 모르는 이주노동자도 구제를 의뢰할 수 있도록 주요 송출국 8개 나라 대사관(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등)에 협조를 구하여 좋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관심은 국내 언론을 통하여 많이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해외에서도 높아 싱가포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기까지 수개국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실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도하였다.

3)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문제 실질해결 촉구대회'를 하여 시민과 함께 하다. (3/22)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가지고 파고다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는 동안 낯선 이방인들의 얼굴에 꽃히는 시민들의 시선은 우려와는 달리 "수긍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파고다 공원에서는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데모까지 하나"는 취객의 시비에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였지만 산재로 인해 팔목까지 문드러진 한 이주노동자의 팔을 보곤 그도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4) 국무조정실 행정조정관 실장, 노동부 근로기준 국장, 중소기업청 인력지원 과장을 만나 이주노동자의 실정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였다.

장관급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반응은 냉담했고, 실무선 교섭 중 "난 이 자리에 앉은 지 한 시간 밖에 안되었다"라는 소리를 접하고 아연하기도 하였다. 우리 측 운영위원들이 가진 이 각각의 면담은 비교적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나 어느 부서도 자신들의 업무라고 자임하거나 긍정적인 답을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참가 운영위원들은 약 일주일 간에 벌어진 3차례의 각 면담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3D업종 한국인 대체고용정책"에 대한 열띤 홍보를 들어주어야 하였다.

5) "불법체류자 벌금 철폐와 자유회환 보장 촉구대회"가 이례적으로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열렸다. (6/23)

본국 귀환을 원하지만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이들이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자진 출두하였을 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8시간 강제 무릎꿇기와 주먹다짐이었다. 보호소 면담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외노협에서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그렇다할 사과는 없었고 구타 대상자들을 서둘러 출국시켜버렸다.

사업 B: 실직 외국인노동자 겨울나기 (98. 12월- 99년 3월)

1) 이주노동자도 실직 기금 지원을 받는다.

한국민들이 푼푼이 모은 실직자 후원 성금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제 2차 제안사업 용모를 통해, 실직이주노동자도 총 4억 2천 여 만원의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노협이 '이주노동자에게도 희망을 주자'는 부제로 시작한 이 사업은 IMF 이후 대거 일자리에 몰려난 이들의 막막한 생계에 활로를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급속히 경직된 사회 분위기에 위축된 심정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2) 전국 7개 권역 50여 개 상담 지원 단체를 통해 기금이 지급되고 있다.

외노협의 명예와 신뢰를 걸고 지원 받은 이 기금을 배분함에 있어,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외노협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맡아 지역의 기타 상담 지원 단체와 함께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업이 확정되자 곧바로 지역신문, 전단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또 각 지역, 나라별 이주노동자 공동체 설명회를 갖기도 하였다.

3) 난방비와 식비, 의약비, 항공권 지원비로 그래도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작으나마 난방비와 식비지급은 생계에 곤란을 느끼던 이들에게 직접적인 구호사업이 되었다. 의약비는 병원과 약국에 갈 엄두도 못 내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독교사회 등 지역별로 의사 및 의료단체의 도움을 얻어 진료의 기회도 함께 마련한 곳이 많다.) 항공권 비용 지급을 통하여서는 심신장애자 및 귀환 희망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들이 받은 또 하나는 심리적 위안이다. 경제 위기 이후 더욱 가중된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고통에 시달리던 실직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 민간단체 기금이 전달된 배경을 설명하였을 때,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사업 C: 아시아 지역 네트워킹 강화

1)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 운동과 인권운동에 대한 '먼저 알기'를 마련하였다.

①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운동의 현황과 연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찾는 심포지움 (3/25)

홍콩에서 열렸던(2.16-21)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 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한국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띤 심포지움이었다.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지고 국제 규약을 살펴봄으로써 이주 노동자 운동의 국제적 흐름과 우리의 과제를 고민하는 장을 가지고자 하였다. 국제적 연대와 로비 캠페인을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기록, 관리(Documentation)가 필요함이 1차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② '아시아 인권운동의 동향과 네트워크 형성 전망'을 모색하는 심포지움 (6/30)

한국 엠네스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인권운동의 전문가들이 아시아 인권 운동의 현실적 흐름을 개괄하고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발전 전망과 과제를 찾는 자리였다. 이 속에서 한국인의 충분하지 않은 국제적 사회의식과 한국 운동의 고립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2) 국제 단체 및 네트워크와의 접촉면 넓히기

①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운동 단체들 간의 Mailing-list를 통하여 각 나라 및 단체의 상황을 빨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외노협도 가입단체로서 유용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② Migrant Forum in Asia라는 네트워크는 사안에 대한 실천적 연대를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래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말레이시아, 이주노동자 포럼에 다시 모인 멤버들은 좀 더 책임감있게 활동하고 실천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재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외노협도 운영위원회 방침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결의하였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이행으로써 범 아시아 지역 공동 캠페인인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조약 비준" 캠페인을 한국에서도 힘있게 시작하였다.

3) 이주노동자 부문을 넘어 전 부문의 민중단체들이 모이는 국제 민중회의에 참가.

① 태국에서 열린 ASEM 민중대회(3/23-24)의 본 대회장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알리는 발제 시간을 갖는 등 아시아 지역 활동가들과 공유의 장을 가졌다.

② APEC 민중회의(11/10-15, 말레이시아)에 참가하였고 '세계화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도전과 응전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이주노동자 포럼을 가졌다. 이어 벌어진 분반 토론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가해지는 권리의 위기', '지구화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가치', '이주노동자의 권한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각각의 토론을 거쳐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추방에 관한 감시, 비공식적 부문의 노동자에 대한 지역적 상담의 촉진, UN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UN조약 캠페인 등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결의하였다.

4) 98' 전세계 이주노동운동의 현황에 번역자료집 발간

국제정세/ 이주민 인권운동 /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NGOs 활동/ 여성 이주민 노동자라는 큰 네가지 영역에 걸쳐 편성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글은 카톨릭 원조기구인 CAFOD의 IMF보고서인 '호랑이 길들이기'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 조약 전문' 및 이주민 권리 감시 위원회가 작성한 그 조약의 '해설과 그 중요성' / 미국의 유럽-독일 연구재단과 버클리대학교의 연구소가 지원하는 98' MIGRANT NEWS/ AMY 98/ '아시아 위기가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G-7국가 이주민 여성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 "여성폭력과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 등이 있다. 기타 별첨자료로 ILO 자문대상 핵심협약들이 있다.

2. 조직사업 보고

사업 A: 경주에서 수련회를 가지다.(7월 14일-16일)

●MBTI TEST를 통해 적나라하게 我 他의 성격을 파악하고 좀 더 화기 애매한 분위기로 접어든 우리들은 연이어 성격 유형별로 팀을 나누어 '상반기 평가와 99년 상반기까지 외노협 계획'을 토론했었다. 재미있는 점은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점은 같았지만 성격 유형별로 풀어내는 사업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16가지 유형의 성격이 이상하리만큼 골고루 분포한 외노협의 구성원을 보며 화합과 조화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기기도 하였다.

놀이판과 관광에 치진(?) 일부 지각 있는(?) 실무자들은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하반기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심야토론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수련회에서 도출된 하반기 계획은 다음과 같다.

-벌금제도 철폐 사업 : 지속적인 질의서, 청원서 작성을 계속한다.

-연수취업제 철폐 사업 : 현재 유입되고 있는 연수생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다.(조사에 입각하여 시위, 공청회 등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한다)

-상담소 간에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친목을 강화한다.

/천리안(PC통신)에 소모임 방을 개설하여 상담사례, 대화, 자료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PC통신을 적극 활용한다.

/쉬놀대(쉬고 놀고 대화하고) : 지역별(수도권) 친목모임을 9월, 11월에 갖는다.

-UN이주민 조약에 대한 홍보와 고민 : 조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스티디한다. / 정세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이용한다.

-심포지움 : 10월 - 국제협약(UN, ILO 등 기타 이노관련 협약에 대해 공부하고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그 후 2월 총회 전까지 외노협 전망에 대해서도 한다.

사업 B: 지역 내 협의, 협조 체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1)수도권 : 외노협 운영위원회가 3개월마다 한 번 있음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간극이 생기게 되어, 이를 메꾸기 위한 회의 방안으로써 수도권 실무자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8-10여 개에 이르는 상담소 실무자들이 구체적 사업에 대하여 실행을 위한 모임을 거의 월 1회 이상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부산, 경남 : 외노협 회원, 참관 단체 및 비회원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 지원 단체 간담회'가 월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하거나 신생 단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광주 : 상시적인 협의창구는 없으나 사안별로 지역 인권 단체간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주노동자 문제도 지역 인권 문제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하는 데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또 실직 외국인노동자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지역 이주노동자 상담 지원 단체가 모여 협조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사업 C: 홍보활동 "나는 외노협이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있다."

1) 소식지 '노동과 평등'을 복간하다.

외노협 제 3호가 3년만에 세상에 다시 얼굴을 내밀게 되었다. 자원활동자들로 이루어진 편집팀은 우선 소식지의 지속적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점차 전문성과 체계성을 담보하려 노력 중이다. 현재 4호, 5호가 나왔다.

2) 외노협 홈페이지를 갱신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 대상도 국내외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외노협은 지난 96년 농성 이후 중단 되어있던 홈페이지 관리를 재개하고 그 내용도 전면 갱신하였다. 또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맡고 있던 정보연대 SING이라는 정보통신 단체가 진보네트워크로 재편됨으로써 홈페이지 주소도 바뀌게 되었다.(그러나 당분간 이전의 주소로 접속할 수 있다.)

외노협 홈페이지 주소 : <http://jcmk.jinbo.net>

3) 외신과 아시아지역 메일링 리스트를 통하여 외노협 활동과 한국 이주노동자 상황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국제적으로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낼 때 내신 뿐 아니라 외신에도 보내주고 있다. 벌금철폐 문제로 활동 열기가 한창 고양되었던 지난 98년 상반기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뉴스위크', '보스턴 글로브',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오스트레일리아 파이낸셜 리뷰', '싱가폴 스트레이트 타임즈'의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이들은 가십기사 스타일로만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내신과 다르게 경제, 정치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또 네팔 노동 총동맹인 GEFUNT는 청와대에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 처우에 대하여 항의 서신을 보내는 반면 우리는 캐나다에서 벌어진 필리핀 여성 부당 추방에 대한 항의서신을 캐나다 출입국관리국으로 보내는 등등 정보통신을 통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연대사업 보고

사업 A: 서울 국제민중회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 워크숍이 열린다. (9/9-15)

서울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민중회의였던 98' Seoul Conference에 조직위원으로 참가하여 한국 각 노동단체와 사회단체들과 더불어 대회를 준비하였다. “세계시장, 신자유주의, 그리고 살아있는 연대” 홀거 하이데(Holger Heide, 독일 브레멘대학 경제학 교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여성 및 인권에 대한 영향, 그리고 멕시코 사빠띠스따의 저항운동과 국제연대” 디아나 다미안(Diana Damian, 멕시코 사빠띠스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투쟁과 국제연대”(허영구 Heo Young-Koo,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주발제를 시작으로 약 일주일 간 열린 이 대회에서는 10여 개국 여러 해외단체의 활동가 및 노동운동가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참가자들은 행사 마지막 날인 9/15에 종로와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하고 거리행진도 가졌다. 다른 국제대회와는 달리 모든 참가자를 자부민박으로 묵혀 한국 민중운동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부문 행사로 외노협은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라는 워크숍을 가졌다. 송출국 필리핀, 유입국 일본, 송출 유입국인 한국의 활동사례와 현황을 듣고 직접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게된 이 자리였다.

사업 B: ‘인권법 제정 및 인권기구 설립 민간단체 공추위’ 참여

김대중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은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립이 가시화되자 민간단체들은 정부주도의 인권기구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민간 주도 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외노협을 포함한 30여 개 노동, 사회 단체가 집행위원회로 참여하였는데 인권기구의 성격과 조직, 그 운영 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논의가 열띤 가운데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인권기구에 관한 민간단체 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런 민간단체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을 골자로 하는 ‘안’을 공표하던 법무부는 정부와 정계에서도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공추위’ 입장을 모아내는 한편 집회와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 각 계의 입장을 좁혀나갔다. 국제엠네스티는 법무부 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항의서한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 보냈고 기타 국제 인권기구 관련 단체도 공추위의 활동을 도왔다. 국민회의는 독립적 국가기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추위’의 안을 존중한 ‘국민회의 안’을 내놓았고, 최근

(1/23) 김대중 대통령은 민가협 관계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민간단체가 원하는 대로 '인권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공추위의 인권기구안에 실린 외노협의 주요 주장은 우선 명칭에서 나타난다. 법무부는 '인권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 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혼동하고 왜곡할 소지가 있고, 법무부가 모델로 삼았다는 뉴질랜드나 캐나다 등은 우리의 헌법과 같은 법이 없기에 인권법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인권법적 내용을 담은 '헌법'이 있기에 이를 준수하기만 하여도 인권신장에 커다란 족적이 있을 것이므로 '인권법'이라는 이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의 '국민'라는 수식어가 국적에 의한 차별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그냥 '인권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추위 안은 결정하였다.

또 '차별 금지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공추위안에서는 차별행위에 대한 명시가 있다. 사회적, 문화적인 변천이 이 규정의 수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작성함에 있어 특히,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또는 피부색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을 비롯하여 '성적 지향', '혼인여부', '가족의 상황'등 소외되기 쉬운 영역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우려 장소에 대한 사찰권에 있어 '외국인보호소'가 추가되었으며, 정치 사회적 문화 배경 상 인권위원회의 권고권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지만 공추위안은 '구제명령 및 권고'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 C: 이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조약' 비준 캠페인이 닳을 올렸다.

이 조약의 중요성은 UN이 정하고 있는 기본 인권을 위한 핵심 7대 조약 중에 하나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외노협은 98년 상반기부터 범 아시아 지역 연대 캠페인으로 결의되어 온 이 조약에 대해 한국 정부도 조속히 비준 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시작으로써 이 조약의 핵심 내용과 의의를 알리는 홍보부터 발걸음을 옮겼다. 98년 겨울, 사회 각 인사 300여분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고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고, 세계 인권선언일 하루 전인 12월 9일에는 언론에 촉구활동 전개를 알리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가졌다.

사업 D: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절 참가 등 한국노동자와 함께...

1) '부당노동행위 척결과 98 입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거리 행

진 도중 퍼포먼스를 하였다. 내용은 난파된 한국배 IMF호에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타고 있다는 내용으로써 IMF라는 시커멓고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주노동자 상(像)도 함께 표현했다. 이날 본대회와 거리행진에 이은 정리집회에서는 즉석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연대발언을 부탁하기도 하였다.(4/18)

2) 전 세계 노동자의 날, MAYDAY집회에 참가하였다. 매년 참가해 오고 있지만 올해는 본대회장에 뿌려진 최루탄 가스에 이주노동자도 한국 노동자와 함께 눈물, 콧물을 흘려야만 했다. 대회장에는 영문, 한글로 작성된 이주노동자들의 연대 메시지가 유인물로도 뿌려져 이채를 띄었다.

4. 기타 사업보고 및 이모저모

1) '국제결혼 가정의 위기와 국적법 고찰'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국제결혼 가정이 사회적 소외 속에서 여러 가지 법제도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을 직접 커플들이 나와 증언하였고,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국적법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타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특히 불법체류자 배우자와 단란한 가정을 영위하는 기본적 인권조차 유린되는 각종 법적 조항들과 사회적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진보네트워크를 통해 외노협 홍보 및 내적 의사소통 발달에 기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 및 한국 내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진보운동의 독자적 정보망을 구축하는 운동을 펼쳤다. 외노협도 추진위원 단체로서 초기부터 진보넷 내의 노동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전세계의 네티즌이 한국의 노동운동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이 노동네트워크에 접속하면 되고 그 화면에서 쉽게 외노협을 만날 수 있다. 또 독자적인 전용망을 이미 구성한 진보넷 내의 사회단체 포럼에 외노협 CUG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속에서는 많은 통신 이용자들이 외노협에서 알리는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외노협 회원 간에는 외부 이용을 일부 차단하여 내부 문서 교환이나 토론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 사례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쉽게 교류하고 또 유형별로 쉽게 데이터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이주노동자의 귀환 및 재정착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색과 실험.

"Re-entry Program"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가 귀환하였을 때 고국에서 재정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활 프로그램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실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었다. 그러던 차에 열린(12/19-23, 마닐라) 포럼에 참가하여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한국 상황에 맞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수고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걸맞는 경사 연이어...

① 천주교 수원교구 노동사목 갈릴리아의 소장인 필리핀인 신부, 유진 신부님이 필리핀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대통령 궁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산해진미를 함께 하기 위해 노동자를 오찬 모임에 동행 하셨다는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은 한사코 말씀하지 않으셔서 많은 외노협 관계자 및 노동자들은 나중에야 축하를 드릴 수 있었다. 또 10년 동안 한국에서 종사해 온 이주노동자 상담활동 등의 이야기와 노동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였다.

② 지난 12월을 피크로 하여 외노협에 결혼 봄이 붙었다. 광주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김용석 상담실장을 최고령으로 하는 결혼 봄은 약 한달 사이에 5명이나 총각, 처녀들을 없애버리는 위력을 가졌다.

외노협 99' 주요 사업계획

1. 정책사업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조약 비준 캠페인

- ①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
- ② 이주노동자 대회(12/18,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공동체를 통하여 UN조약 내용을 홍보하고 자국 대사관, 정부에 꾸준히 건의토록 한다.
- ③ 정부 및 이주노동자 송출국 및 한국 노동자 유입국 대사관에 대한 방문, 로비
- ④ 해외취업 한국인 실태 감시 및 대안 촉구활동에 대한 타 단체 제안 및 연대

2) 귀환 PROGRAM 운영 및 연구

- 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상담소를 선정, 운영하면서 한국형 모델을 찾는다.
- ② AMC 실무자 방한 ; 귀환 프로그램 운영 상담소 등에 대한 순회 설명회와 토론.
- ③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워크샵 ; 마닐라포럼(98.12)과 AMC방문에 대한 보고대회.

3) 연수제도 폐지 촉구 활동

- ① 연수제도에 대한 백서 발간 ; 이를 통한 실증적인 실태파악과 연구 분석
- ② 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제 실시에 대한 촉구활동
- ③ 현지법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산재보험 적용 실현 촉구활동

4) 의료공제회 구성

- 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국규모 의료공제회 구성

2. 조직사업

1) 정기회의 및 모임

- ① 상반기 수련회 (99년 여름 경)
- ② 정기 운영위원회
- ③ 차기 정기 총회

2) 이주노동자 공동체 강화

- ① 지역별(상당소별) 공동체 강화
- ② 공동체 간부 양성
- ③ 공동체와 간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교육소위)

2) 교육활동

가) 실무자 교육

- ① 일본 Study Tour ; 일본의 NGO운동과 지역노조의 현황파악
- ②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워크샵 ; '2)-③ 참조'
- ③ 컴퓨터 교육(a.통신의 기본활용 / b.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 ④ 근로기준법 등 노동 실무 워크샵
- ⑥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등 국제조약 연구

나) 공동체·공동체 간부 교육

- ① 간부교육 : 공동체 조직과 운영에 대한 마인드와 실무
- ② 근로기준법 등 한국 내 관련법에 대한 교육
- ③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등 이주노동자관련 국제법 교육
- ④ 영자신문 Asian Workers News 지원

3) 사업소위 구성

의의 ; 상당단체의 특성화와 전문성 강화 / 외노협 사업에 대한 주체적 참여

방안 ; 다음의 3가지 사업소위를 상당단체의 참여희망에 따라 구성한다.

- 귀환프로그램 소위 - 사업내용은 '1-2)귀환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 참조
- 연수생문제 대책 소위 - 사업내용은 '1-3)연수제도 폐지 촉구' 참조
- 교육소위 - 사업내용은 '2-2)교육활동 강화' 참조

3. 기타, 홍보 및 국제연대

1) 소식지 '노동과 평등'

- ① 짜임새 있는 기획과 편집력 보강
- ② 꾸준한 발간
- ③ 이를 통하여 홍보활동에 기여한다.

2) 국제연대 활동

- ① MFA(Migrant Forum in Asia)의 활동 참여
- ② ASEM 민중대회, APEC 민중회의 등 국제민중회의에 참여
- ③ 기타, 국제연대를 긴밀히 하고 이주노동 운동의 진전을 위한 국제활동에 동참
(예; 항의 및 연대 메시지 요청에 대한 응답, 정보교류, 이주노동운동 관련 세미나 참여 등)



99년 일정별 행사계획(안)

일 정	사 업	항 목	비 고
2월	98' 백서 발간	교육	
3월	제1차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3/1 오후 2시 사무실
	일본 스터디 투어	교육행사	
	ASEM민중회의	행사	
	컴퓨터 교육-1	교육행사	통신교육, 상담양식통일 추진
4월	일본 방문 보고대회	교육행사	4/8 오후2시-5시
	AMC 스태프-순회 토론회	교육	귀환프로그램
5월	메이데이 참가	행사	5/1. 퍼포먼스 등 준비
	귀환PG.보고대회	교육행사	5/2. 오찬 겸한 심포
	외노공동체 간부교육-1	교육행사	5/6-7. 인간관계훈련, 안양 "Am I happy?" Tann 및 자체 프로그램
6월	제 2차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6/1 오후 2시 사무실
	근로기준법,노동실무 교육	교육행사	6/10
	컴퓨터 교육-2	교육행사	DB구축, BBS구축
7월, 8월	상반기 수련회	교육행사	7.11-14 상반기평가와 비전, UN조약 교육(공동체 교육-2포함)
9월,10월	제 3차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9/1 오후 2시
	연수제 백서 발간 및 공청회	교육행사	
11월	APEC민중회의	행사	
12월	제 4차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12/1 오후 2시 사무실
	이주노동자대회	행사	12/18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공청회	교육행사	12/17 또는 19, 연대행사로.
	민중대회	행사	



98' 국정감사 자료로 보는 외국인노동자 체류실태와 연수생 현황

- 외국인노동자 체류 현황 -법무부 자료 발췌
- 연수생 관련 현황과 연수취업제 운영현황 -중기업 자료 발췌
- 산업연수생 활용포기 현황 -법무부 자료 발췌
- 연수생 선정 배분 관리 등에 관련된 각 부처의 권한 근거법 관련회의 참석자 인적현황

Ⅰ 외국인노동자 체류현황

[법무부 자료 발췌]

◎ 출신국가별, 남녀별 체류현황

(단위: 명)

	계		합법취업		연수생		불법체류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 계	103,506	50,798	7,340	3,264	34,941	16,073	61,225	31,461
중 국	40,934	30,862	318	138	9,941	8,670	30,675	22,054
인도네시아	9,218	2,483	13	3	8,366	2,332	839	148
베 트 남	6,406	3,184	7	3	4,087	2,343	2,312	838
필 리 핀	6,882	3,858	272	471	2,690	1,227	3,920	2,160
방글라데시	9,909	56	3		3,291	17	6,615	39
스리랑카	1,977	906	1		997	731	979	175
우즈베키스탄	2,800	414	13	15	1,911	178	876	221
일 본	926	387	720	191			206	196
미 국	4,399	1,904	3,162	1,086			1,237	818
카 나 다	1,455	891	1,269	768			186	123
독 일	366	78	176	25			190	53
프 랑 스	247	196	125	40			122	156
영 국	367	108	244	71			123	37
호 주	157	88	119	58			38	30
뉴 질 랜드	44	38	33	22			11	16
남 아 공	99	30	58	23			41	7
기 타	17,320	5,315	807	350	3,658	575	12,855	4,390

불법취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대부분은 연수생(전체 33.06%)이며, 이외 합법적인 취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외국인은 6.87%에 불과하다. 나머지 60.07%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합법취업의 대부분은 미국, 일본, 유럽동지의 선진국이며, 동남아 및 중국등지도 약간명 씩의 합법취업자들이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및 유럽과 뉴질랜드, 호주 등지의 국가에서도 연수생은 존재하지 않지만, 불법체류자는 각각 미국 2055명, 캐나다 209명, 독일 243명, 호주 68명, 뉴질랜드 27명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취업현황(추천기관별, 종사업종별)

□ 산업기술연수생

계	해외투자업체 (제조업)	중기협 추천 (제조업)	수협추천 (어업)	건설협 추천 (건설업)
51,014 (명)	16,456	33,565	545	448

□ 합법취업자

계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홍행 (E-6)	특정활동 (E-7)
10,604	786	4,957	578	537	190	1,092	2,464

◎외국인 취업자 체류현황(법무부 자료)

(단위 : 명, ()는 %)

'98. 8 현재	총 계	취업비자	연수비자		불법체류자
			해 투 연수생	산업 연수생	
	154,304 (100)	10,604 (6.9)	16,456 (10.7)	34,558 (22.4)	92,686 (60.1)

※불법체류자 범칙금면제 조치이후 출국현황

- 61,689명 출국('97. 12. 27 - '98.4.30 : 53,839/ '98. 7. 1 - 8. 31 : 7,850)

◎취업비자(전문·기술인력) 인력현황('98. 8월말)

(단위 : 명)

계	교수 (E-2)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홍행 (E-6)	특정활동 (E-7)
10,604	785	4,957	578	537	190	1,092	2,464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98. 8월말)

(단위: 명)

계	중국 (교포)	필리핀	방글라 데시	네팔	파키 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시아	기타
92,686	52,729 (25,503)	6,080	6,654	588	2,245	3,136	3,150	987	17,117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총 154,304명이며, 이중 취업비자는 10,604명이고 연수비자는 해투 연수생이 16,456명(10.7%), 산업연수생이 34,558명(22.4%)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서 불법체류자는 92,686명에 달해 전체의 60.1%나 차지하고 있다.

취업비자는 주로 교수, 회화지도, 연구 및 기술지도등 전문 기술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합법적인 취업자 이외의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동남아 및 중국등지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많은 수는 중국이 52,729명으로 가장 많고(그중 조선족이 25,503명을 차지함)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IMF이후 출국한 외국인노동자의 국가별/직종별/성별 인원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 기간 중에 출국한 외국인 현황

	계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몽골	베트남	파키스탄	기타
계	61,689	16,245	8,343	4,665	6,262	4,178	4,678	3,100	14,217
97.12.27 -98.4.30	53,839	12,613	7,731	4,314	5,948	3,642	4,530	2,893	12,168
98.7.1 -98.8.31	7,850	3,632	612	351	315	536	148	207	2,049

○출입국관리법 위반 출국자 현황

국적별	계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국	태국	네팔	기타
계	71,423	20,407	9,088	5,370	3,699	1,809	6,288	1,137	23,625

◎IMF이후 새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국가별/직종별 인원

	계	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행 (E-6)	특정직업 (E-7)
합계	27,992	1,619	1,666	10,816	1,170	2,198	498	1,179	8,276
미국	10,888	226	902	4,732	476	364	148	134	3,906
일본	4,761	327	166	937	139	1,185	1	5	2,001
캐나다	4,516	19	63	3,865	23	54	12	5	475
필리핀	1,189	151	6	16	5	6	99	813	93
중국	899	229	140	97	252	10	0	17	154
인도	266	4	4	2	39	31	12	1	133
타이	41	13	2	7	6	0	0	0	13
인도네시아	28	1	2	6	2	0	0	0	17
우즈베크스탄	48	1	0	3	6	0	0	35	3
방글라데시	5	0	0	0	0	0	1	0	4
스리랑카	3	2	0	0	0	0	0	0	1
베트남	15	1	2	6	5	0	0	0	1
파키스탄	26	4	3	0	2	0	7	0	10
기타	5,347	641	376	1,145	215	548	218	739	1,465

II 연수생 관련 현황과 연수취업제 운용현황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통상산업관리위로 제출한 98' 국정감사 자료 중 발췌]

가. 송출업체 현황 및 송출실적

(98' 8월 31일 현재)

국가명	송출기관명	배정인원	입국인원	비고
중국	위해	1,969	2,623	
	천진	1,944	2,533	
	허룽강	1,759	2,022	
	연변	2,529	2,833	
	무순	2,017	2,272	
	건축	1,404	1,511	
	연흥	1,307	1,490	
	길림	2,246	2,501	
	산둥	1,474	1,562	
	*성투	1,298	1,332	
**	1,000	-		
소 계	10	18,947	20,679	
베트남	LOD	2,490	3,018	
	SOVILACO	2,491	2,913	
	VINACONEX	2,504	3,098	
	OLECO	1,865	1,838	
	SULEXCO	1,965	2,208	
	TRACODI	1,450	1,562	
	IMS	577	469	
	TRACIMEXCO	578	553	
소 계	8	13,920	15,659	
필리핀	*MAVERICK	769	692	
	PPCC	1,303	1,758	
	LABOUR	1,538	2,255	
	WORLDNET	1,936	2,142	
	EQUI-ASIA	1,932	2,080	
	P.HOUSE	1,132	1,353	
	JERPHI	400	379	
소 계	6	9,010	10,659	

(98' 8월 31일 현재)

국가명	송출기관명	배정인원	입국인원	비고
인도네시아	B.PRADUTA	1,110	2,074	
	B.INTI	2,651	4,286	
	BINAJASA	2,875	3,909	
	AMRI	2,875	3,905	
	PANDU	2,680	3,901	
	AVCOJAYA	651	567	
	AVIADUTA	650	588	
	MEGAHBUANA	650	642	
	GUNAMANDIRI	650	577	
소 계	8	14,792	20,449	
방글라데시	BAY	2,476	2,706	
	UNIQUE	2,491	2,621	
	RUPSHA	1,636	1,729	
	SILVERLINE	1,698	1,745	
소 계	4	8,301	8,801	
스리랑카	*MACKINNON	792	777	
	SLBFE	2,204	2,314	
	G.STEUART	450	377	
소 계	2	3,446	3,468	
파키스탄	PSB	2,179	2,319	
우즈베크	AFLM	2,759	3,520	
네팔	LUMBINI	1,426	1,750	
미얀마	*MULTI-GATE	1,151	1,472	
태국	T.LABOUR	2,017	2,367	
이란	FEOS	572	588	
카자흐스탄	CMWA	980	769	
몽고	ZAG	500	162	
총 계	45	80,000	92,662	

*) MAVERICK, MACKINNON 송출기관은 96.9.21 字, B.PRADUTA는 97.6.23 字, MULTI-GATE는 98.1.30 字, 성투는 98.9.1 字로 계약해지된 송출기관임.

***) 중국배정인원 1,000명은 조선족 사기피해자를 도입하기 위한 재정인원임.

* 송출기관별 입국인원은 신규 및 중도(만기)출국자의 대체인원을 포함한 숫자임.

나. 산업연수생에게 징수하는 각종 비용

▶사후 관리비

사후 관리업체가 연수생을 사후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중당키위해 매 월 징수.

: 월 사후 관리비 : 24,000원

- 사후 관리업체의 업무

연수생의 인도인수, 연수업체 및 연수생의 보호, 연수생의 재해, 전염병, 사고 현황 관리 및 관리결과와 보고, 사업장 이탈 및 사고 연수생 소재지 파악, 연수생 출국계획 수립 및 출국조치, 기타 연수생 사후관리 업무의 실행

▶의료보험료

-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 8조에 근거하여 연수생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음

- 의료보험법 제 52조(보험료의 부담)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50%를 연수생이 부담

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수준과 연수생들의 임금수준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월평균 연수수당과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월평균급여액(97' 12)

(단위: 원)

외국인산업연수생(A)	중소제조업생산직근로자(B)	중소제조업 전체근로자(C)
617,387	886,307	992,105
69.796(A/B)	100%	119.4%(C/B)

*월평균 급여액은 상여금 등 특별급여를 제외한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자료: 1. 연수생 월평균 급여액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인력 실태조사 결과"(97' 12)에 의함(상시 근로자 5인~300인 중소기업대상)

2. 중소기업 근로자 월 평균급여액은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 보고서"(97' 12)에 의함. (상시근로자 10인~299인 중소기업대상)

▶연수생들이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혜택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준용

-기본 연수시간

: 1인 8시간, 1주 44시간, 월 226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유급휴일 제공

: 1주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 제공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타법의 적용내용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 258조)에 근거하여 연수생에 대해 최저임금 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음.

라. 연수생 관련 중앙회 수입 내역

▶수입내역

(단위:천원)

구분	97'	98'	비고
연수관리비	5,182,546	2,816,423	
예금이자	2,358,150	1,904,910	
귀속금	703,804	1,148,084	
이월수입금	-	-	
계	8,244,500	5,869,417	

마. 업종별 연수업체 및 연수생 현황

업종	연수업체	체류인원			이탈률(%)	비고
		계	연수인원	이탈인원		
음식료품	218	1,389	1,113	276	19.9	
섬유제품	1,509	13,384	8,858	4,526	33.8	
의복 및 모피	109	1,235	604	631	51.1	
가죽 가방 신발	113	1,339	706	633	47.3	
목재 및 나무	85	568	334	234	41.2	
펄프 종이	247	1,671	1,062	609	36.4	
출판인쇄	75	536	267	269	50.2	
코르크석유정제	6	29	14	15	51.7	
화합물 및 화학	347	2,166	1,345	821	37.9	
고무 플라스틱	818	5,453	3,605	1,848	33.9	
비금속광물	300	2,070	1,311	759	36.7	
제 1차 금속	363	2,402	1,499	903	37.6	
조립금속	703	4,556	2,825	1,731	38.0	
기타기계정비	521	3,436	1,969	1,467	42.7	
회계용 기계	27	251	164	87	34.7	
기타 전기기계	236	1,834	958	876	47.8	
영상음향통신	362	3,194	2,003	1,191	37.3	
의료정밀화학	100	804	533	271	33.7	
자동차부품	521	4,182	2,423	1,759	42.1	
기타 운송장비	64	413	246	167	40.4	
가구 기타제조	221	1,683	1,014	669	39.8	
재생재료가공	31	165	127	38	23.0	
총계	6,976	52,760	32,980	19,780	37.5	

바. 국가별 년월별 연수생 이탈현황

(98' 8. 31)

구분	94'	95'	96'	97'	98'									총계
					1	2	3	4	5	6	7	8	계	
네팔	73	198	119	99	-	2	-	-	1	-	-	-	3	492
미얀마	61	112	36	37	-	1	-	-	1	2	2	1	7	253
방글라데시	98	398	1,135	1,489	24	12	29	14	13	20	20	18	145	3,265
베트남	49	428	982	1,360	13	5	5	8	13	31	31	9	92	2,911
스리랑카	82	361	360	409	1	3	-	3	2	-	-	4	22	1,234
인도네시아	2	30	212	512	4	7	2	1	7	3	3	3	33	789
중국	25	151	230	407	8	4	8	7	7	9	9	10	71	884
중국(조선족)	1,343	1,660	870	1,824	27	34	57	41	41	51	51	38	348	6,045
필리핀	165	672	592	720	16	9	18	25	25	10	10	17	140	2,289
파키스탄	136	325	190	380	4	1	1	4	4	3	3	1	19	1,050
이란	12	100	32	29	-	-	-	-	-	-	-	-	-	173
우즈베크스탄	-	3	14	148	2	3	4	4	3	2	2	-	22	187
태국	-	-	40	138	4	2	1	-	-	4	4	-	12	190
몽고	-	-	-	-	-	-	-	-	-	2	2	2	5	5
카자흐스탄	-	-	-	11	1	-	-	-	-	-	-	-	2	13
총계	2,046	4,438	4,812	7,563	104	83	125	107	114	148	127	103	921	19,780

※ 당해기간 발생 이탈인원임. (기존 이탈자 중 출국자는 제외하였음)

▶97~98년도 신규 연수생 도입실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신규연수생 도입계획이 없으나, 연수기간 만료 또는 연수생 개인 사정으로 연수생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수 만큼의 대체입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98년 8월 말 현재 6,749명이 입국하였음.

▶연수생 관리자 제도는 외국인연수생이 효과적으로 연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연수업체에 연수생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으로서 연수생의 인수인도,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건강검진, 안전사고 예방지도 등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이 연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수생이 많지않은 소규모업체는 대표자가 연수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사. 송출업체 선정관련 현지실사자

▶현지실사자

국가	실사기간	실사자	비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95'7.3-7.11	김종모 박형균	퇴사
베트남 스리랑카	95'7.4-7.13	정유후 전현호	퇴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95'7.3-7.12	이영택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	96'7.25-8.2	황연환 전현호	
인도네시아 필리핀	96'9.22-10.1	최정태 김경만 김재신	
베트남 스리랑카	96'9.22-10.2	박용태 유소진 은정현	퇴사

※중소기업청의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97'11.18)에 의하여 이후부터는 송출기관 선정이 상대국 정부에 일임되어 있음.

아. 산업연수생 취업제 개요 및 운영현황

▶외국인연수제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연수취업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져(97' 12.13) 도입근거가 마련되었고(동법 제 19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5 및 제 24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제 18조의 2)이 개정되어 (98'4.1) 세부시행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내용은

- 98' 4.1 이후 입국한 연수생 중

- 2년 간 연수한 연수생에 한하여 연수취업자로 전환자격 부여하여
- 연수업체 추천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시험 합격하며 연수취업자료 전환토록 하였고
- 기존 연수업체에서 1년 간 취업토록 하는 것임.

▶연수취업제는 98' 4.1 이후 입국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2000년 이후에 가능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 및 시행방안을 노동부에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자. 산업연수생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업체에 대한 추천 취소 및 시정조치 현황, 시정 기준 및 취소 기준

▶연수생 부당처우 현황

-연수업체의 연수생에 대한 부당처우의 형태는 연수수당 체불이나 정기적금 미납과 같이 금전적인 처우 관련 문제가 대부분이며 그밖에 연수여건으로서의 숙식조건 미흡 등의 사례가 있음. 특히 연수수당 체불이 전체 88개 업체 중 64개업체(72.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연수업체의 연수생에 대한 기타 사례로는 간혹 국가 간 생활관습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언쟁, 사소한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경우임.

구분	금전적 처우 관련 사례					기타 사례				총계
	수당체불	숙식조건 미흡	정기적금 미납입	기타	소계	연수생과의 다툼	욕설	기타	소계	
97년도	35	4	-	8	47	5	1	1	7	54
98년도	29	1	9	2	41	4	-	-	4	45
계	64	5	9	10	88	9	1	1	11	99

차. 추진취소 및 시정조치 현황

▶그동안 연수생에 대한 연수업체의 부당처우 현황 및 조치 내용을 보면,

-97년 이후 현재까지 99개 업체에서 연수생에 대한 금전적 처우 관련 문제 및 기타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85개 업체는 우리회(중기협)의 시정조치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14개 업체는 우리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수업체 계약해지를 하였음.

-연수수당 체불의 경우, 97년도 이후 현재까지 64개 업체에서 체불 수당을 해결하여주지 않고 있다는 연수생의 요청을 받고 우리회에서는 연수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체불해고 노력을 하는 한편, 수당 체불건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우리회에 예치한 연수업체의 연수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우리회의 다각적인 체불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해소 의지가 없거나 불가능한 12개 업체에 대하여 부득이 연수업체 계약해지를 하였음.

-연수생과의 다툼의 경우 우리회에서 연수업체 가해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피해 연수생과 합의를 유도하여 9개 업체 가해자와 연수생 간 원만히 합의되어 종결처리 되었음.

-기타 사례로 숙식 조건 미흡, 정기적금 미납입, 산재보험 미가입, 작업환경 열악 등이 있으며 2개 업체에 대하여 기숙사 시설 불량 및 산재보험 미가입으로서 우리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계약해지하였으며, 24개 업체는 우리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시정되었음.

▶우리회에서는 연수업체에서 연수생에 대한 금전적 처우 관련 문제 및 기타 사례 발생 시 우리회 직원이 연수업체를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시정조치 및 조정지도를 수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회의 시정조치 및 조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수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 외국인 사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및 연수추천계약서(A-E) 제 23조(계약의 해지)에 의거하여 연수업체 계약해지와 아울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생을 인수하여 타 연수업체로 배정 조치 함으로써 연수업체의 부담처우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구분	시정조치			계약해지			계
	97년도	98년도	소계	97년도	98년도	소계	
연수수당채불	27	25	52	8	4	12	64
연수생과의 다툼	5	4	9	-	-	-	9
기타	13	11	24	1	1	2	26
계	45	40	85	9	5	14	99

III 산업연수생 활용포기 현황

(단위 : 업체, ()는 명)

구분	도산	경영악화	인수거부	계	
94년	28(75)	6(133)	-	34(208)	
95년	98(1360)	111(218)	32(88)	241(442)	
96년	146(520)	170(509)	65(149)	381(1,178)	
97년	299(1,271)	506(1,505)	72(171)	877(2,947)	
98년	1/4분기	211(790)	864(2,734)	236(458)	1,311(3,982)
	1/4분기	84(208)	714(2,068)	201(381)	999(2,747)
	3/4분기 (7,8월)	67(262)	398(1,179)	63(116)	528(1,557)
	소계	362(1,350)	1,976(5,981)	500(955)	2,838(8,286)
계	933(3,352)	2,768(8,346)	669(1,363)	4,371(13,061)	

◎ 산업연수생 활용 포기업체수, 포기인원(인수거부 포함)현황 및 포기사유

각 업체별로 산업연수생을 포기(인수거부)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연수업체에서는 도산, 경영악화 등 연수업체의 경영사정 인하여 연수생의 활용포기 및 인수거부를 하고 있다. 94년 연수생 도입이후 98년 8월말까지 연수생 포기현황은 4,371개 업체, 13,061명이다. 특히 IMF체제의 여파로 98년도에 연수생 활용을 포기한 현황은 2,838개 업체, 8,286명으로 전체 포기 연수생의 63%를 차지하여 IMF체제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연수업체가 연수생들의 활용을 포기하거나 인수를 거부한 연수생들은 타 연수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출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